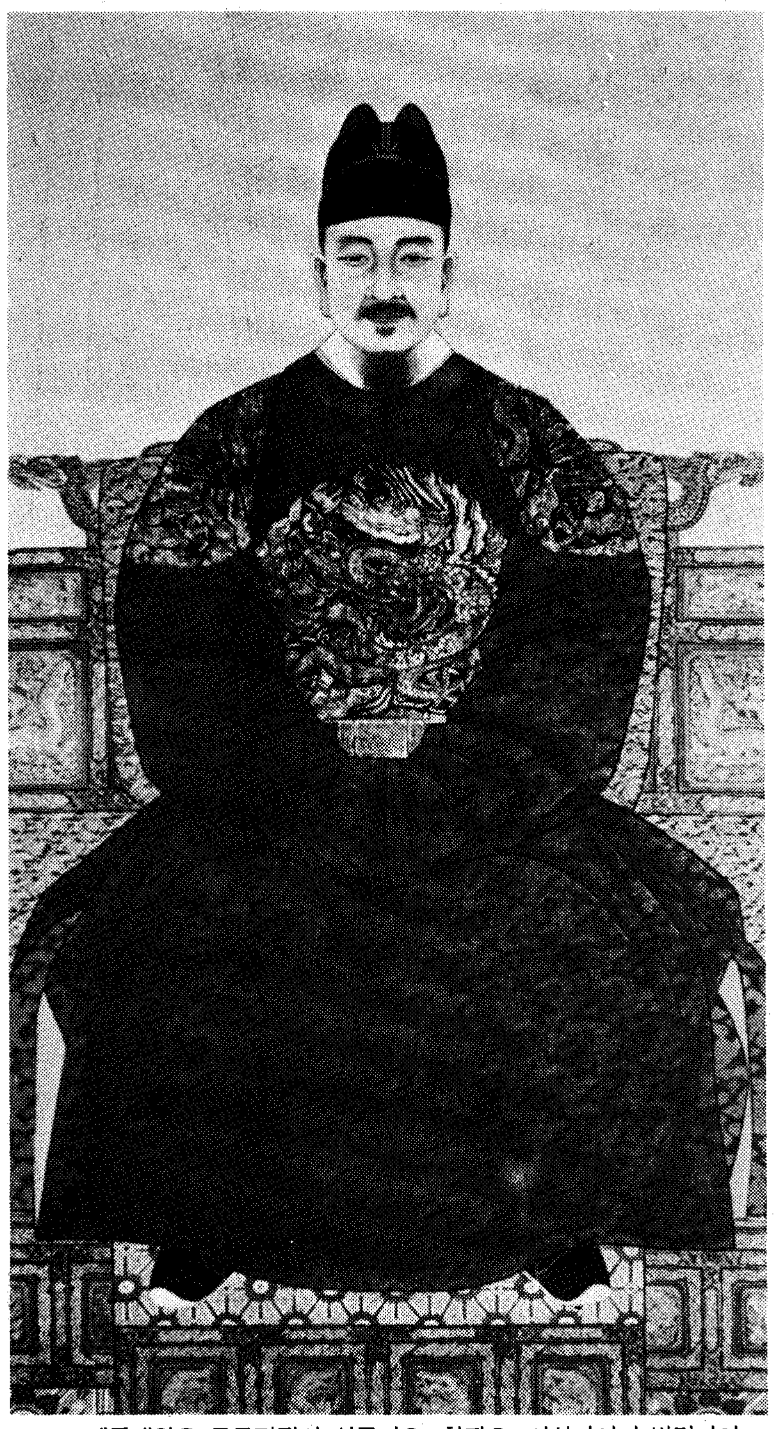
□5월15일 세종대왕 탄생 6백주년을 맞아

언어 공동체는 민족 공동체를 결속하는 힘

세계 언어학자들이 경탄하는 우리말의 우수성

과학적 공동사회에서 민족어 지켜나가야



▲세종대왕은 문무겸전의 성군이요, 학자요, 사상가이며 발명가이자 또한 풍류를 사랑하는 예술가이다

최 상 진
〈국문과 교수〉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훈민정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적 가치는 실로 엄청나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산재해 있지만 한 국가 집단이 단일한 언어공동체를 가진 나라는 손꼽을 정도이다. 훈민정음은 우리 민족에게 우리만의 고유한 언어체계를 가지게 해 주므로써 민족적 결속력과 문화적 응집력을 더욱 공고히하게 해 주었던 것이다. 훈민정음이야말로 우리 민족이 파란만장했던 세계 근·현대사의 격랑속에서 동북아의 단일민족 국가로서 꿋꿋이 지탱할 수 있게 해준 힘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적인 문자체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시카고 대학의 언어학자 맥콜리 교수는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이면 언어학을 연구하고 있는 한국인 유학생들을 집으로 초청한다. 그는 한국에서 모셔온 세종대왕의 초상화에 경배하고 그날 하루를 개인적인 명절로 지낸다. 그는 민족언어의 창제일을 국가 공휴일로 제정한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임을 찬양하면서 한국 문화의 위대성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94년 6월 미국에서 간행된 디스커버지에 언어학자 제어드 다이아몬드가 기고한 글에서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알파벳이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라 하고 한글을 세계 언어의 모델로 제시하였다. 그는 한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한글의 모음은 작은 점들이 덧붙여진 긴 가로 세로 선으로 표기되는데 비하여 한글의 자음들은 모든 것이 꽉 짜여진 부호로 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또 한글은 영어의 알파벳과 같이 자음 모음을 따로 만들었으나 표기할 때에는 자음과 모음을 조화있게 모아 씀으로써 문자는 모두 28자밖에 안되나 이것들이 결합하여 수많은 음절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가히 경이로운 문자라 하였다. 1960년 미국 하버드 대학 교과서로 간행된 라이샤워 교수의 '동아시아 그 위대한 전통'이라는 책에서 한글을 가리켜 '한글은 아마도 어떤 다른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것보다도 가장 과학적인 문자체계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1985년 샘슨 교수는 그의 '문자체계'라는 저서에서 한글만이 가지는 자질문자체계는 세계문자 사상 유일무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치된 문화유산

이렇게 서양의 문화·언어학자들이 훈민정음의 우수성에 대하여 경탄과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는 훈민정음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훈민정음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 국어학 연구는 이미 서구의 언어학적 논리에 밀려 점차 그 빛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어학도 외국에 가서 연구해 오는 아이러니가 학계에 만연하고 있다. 우리의 언어생활을 보자. 세계화 국제화 바람에 편승하여 우리말 우리글에 대한 소중함을 까맣게 잊은 채 서구의 종속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류의 글자문화의 최대 금자탑이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업수이 여기고 세계 속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최근 프랑스는 불어전용법을 만들어 놓고, 회의나 세미나 등 공식 석상에서 영어 등 외래어를 사용하면 처벌한다는 법률조항을 신설했다고 한다. 캐나다도 불어권의 한 주가 곧 독립을 선언하리라는 소식이 들린다. 스위스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공동체를 형성하고 독립을 추진하겠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런 추세는 구소련권·동구라파권·아프리카권·동남아시아권·중국권·인도권 등 세계 전역에서 작지만 나름대로의 언어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독립의 꿈에 자극을 주고 있다. 언어공동체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결속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언어 민족주의 기운이 일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미 재고돼야

5월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세종 탄신 600주년 기념일이다.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우리 민족어를 미래의 과학적 공동사회에서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히 검토할 시기에 와 있다. 훈민정음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세종대왕기념관 탐방기

'한글을 쓸때는 세종대왕을 생각한다'

"물을 마시면 그 근원을 생각한다."는 옛말이 있듯이, 한글을 사용하는 국민이라면 한번쯤 세종대왕의 은덕을 생각해 볼 것이다.

세종대왕의 위업은 다만 한글창제에 그친 것이 아니다. 천체본, 천체관측기, 해시계, 물시계의 제작, 측우기를 이용한 비 측량의 창시, 활자의 개량, 아악의 창설, 전제의 개혁 정리등의 세계적인 업적이 세종시대에 이루어졌다. 또 집현전의 학자들을 지도하여 역사, 지리, 운학, 농사, 의학, 예의, 저치, 도덕, 불교 및 문학에 관한 서적을 저작 간행하여 영구 불멸의 정신 문화를 진흥하기도 했다.

이러한 세종때의 유적, 유물, 관계 문물을 보관 전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종대왕이 창조하신 민족 문화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창설한 것이 바로 세종대왕기념관이다.

1973년 10월9일 개관한 기념관은 7백50평의 2층 건물로 1층 세종문화진열실에는 일대기실, 한글실, 과학실, 국악실의 4개 진열실이 마련되어 세종문화의 재반 유물을 전시한다. 주변경내에는 세종대왕 신도비와 구 영릉에서 발굴한 각종 석물, 수표석, 해시계, 물시계 등의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다.

세종대왕기념관 한가운데에 위치한 일대기실은 세종대왕의 어진과 함께 제위 32년 동안의 업적을 14폭의 동양화로 제작하여 진열하고 있다. 세종당시의 가장 큰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훈민정음 및 한글 관계 문헌은 한글실에 전시되어 있다. 외국 문자의 탁본, 한글 기계화 관계자료도 관람할 수 있다. 과학실은 세종시대의 조판, 인쇄과정을 재현시킨 한자 관계 유물을 비롯하여 측우기, 해시계, 물시계 등의 발명품과 여러 천문기구 및 지도, 한약제 등을 진열하고 있어 그 당시 과학에 대한 끝없는 탐구를 역역히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세종시대에 정비된 각종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등 국악기 70여종과 악사복식 및 무용복식, 진연청도 등을 전시하고 있는 국악실도 홍미로운 관람거리이다.

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면 10분 거리도 채 안되는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아 가 본 경희인이 얼마나 될까?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세종대왕 탄생 6백주년을 맞아 기념관을 한번 찾아가 보는 것도 의미 있을 듯 하다.

〈강재은 기자〉

세시봉

'증서'로 끝난 헌혈증서

공광섭 편집장

어느날 밤 교통 사고로 한 청년이 응급실로 실려온다. 그는 출혈이 너무 심해 수혈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기까지 하다. 연락을 받고 다급히 찾아온 청년의 어머니 순간 아들의 '헌혈증서'를 생각한다. 곧 그녀는 치료비를 절약하기 위해 병원 원무과로 달려가 헌혈증서 두장을 제출한다. 그러나 원무과 직원은 접수를 거부, 혈액비용을 포함한 치료비를 청구한다.

우리나라 헌혈사업은 35년전 4·19혁명 후에 대학생들의 단체 헌혈로 시작 되었으며 현재 전국민의 4.8%가 동참함으로써 헌혈사업도 선진국대열에 동참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헌혈사업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를 발행한다. 대한적십자에서 발급한 헌혈증서 소지자는 장당 3백40cc의 혈액을 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혈액관리법 시행령은 의료기관이 헌혈증서 소지자에게 무상 수혈을 거부할 경우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병원에서는 수혈비용의 20%를 혈액원으로부터 받는데 절차가 까다롭고 평균 1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환자들의 헌혈증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혈액 소비량이 적은 중소 병원에서 특히 심하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 동안에도 병원들은 봉사정신 결여와 절차의 번잡함으로 비난을 피하지 못했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서비스 좋고 경쟁력도 있는 많은 외국 병원들이 들어오게 된다. 이 같이 병원들의 횡포가 계속된다면 국내병원의 신용 실추는 물론 이웃사랑 실천의 기본인 헌혈제도의 뿌리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다.

모든 병원들의 고객은 국민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자신과 이웃을 위해 소중한 피를 저장 해 두었다면 그것을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이다. 더구나 헌혈증 소지자에 대한 무상수혈은 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이러한 국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병원협회와 정부가 앞장서서 해당병원에 대해 그에 합당한 징계와 시정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해당 병원 스스로의 반성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혈액원은 병원측이 주장하고 있는 복잡한 절차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해야 할 것이다.

학술단신

'불교와 나' 강좌

서울대는 '한국불교의 반성적 고찰'이라는 주제로 생활문화학교 불교교실 제2강좌를 5월 22일 5시에 실시한다. 24동 109호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성태용 스님이 초청된다.

점자강습회 실시

서울대는 사회대 237호에서 제5회 점자강습회를 개최한다.

5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강습은 5시 30분에서 7시까지 1시간 반동안 열린다.

자세한 문의는 02)877-7690, 012-953-6696.

풍물강좌

서강대는 각일 6시부터 풍물강좌를 개설한다. 김대건관 302호에서 실시하는 이번 강좌는 참가비 1만5천원으로 서강대 풍물패 연합이 신청받는다. 강사는 추후 변경 가능.

일시	주제	강사
5월13일	생활 속의 풍물굿	이종진
5월20일	풍물 속의 운동성	박홍주
5월27일	풍물굿과 무속	이태호
6월 3일	대학 풍물의 성과와 과제	최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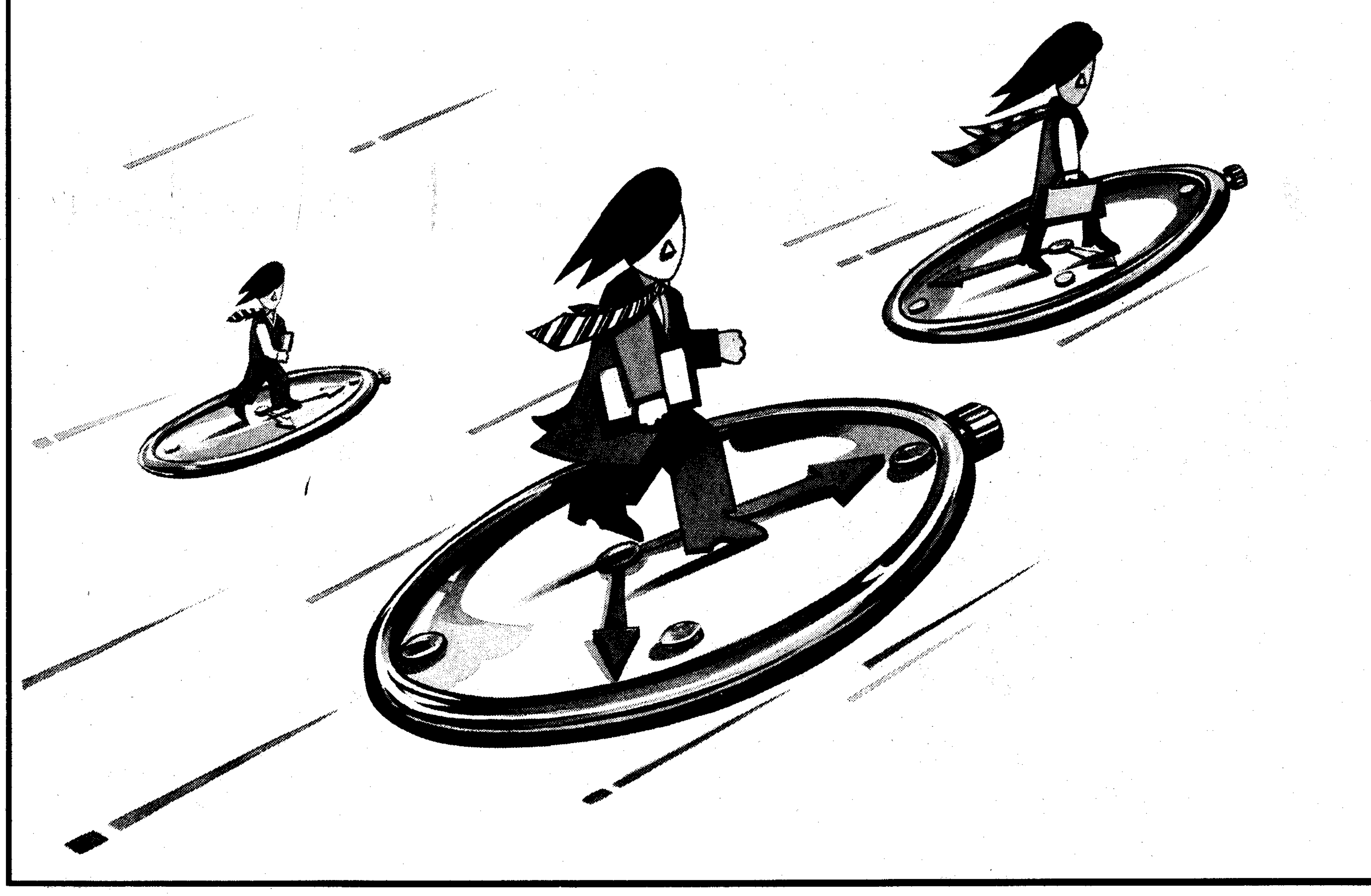
역사 문화 강좌

이화여대는 5월 6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인문관 111호에서 역사문화에 대한 강좌를 개설한다.

일시	주제	강사
5월 6일	구한말에 강제된 조약들	이태진 (서울대)
5월13일	앙코르와트	권삼윤 (여행가)
5월27일	독도의 어제와 오늘	신용하 (서울대)
6월 3일	Silk Road	문영대 (동국대)
6월10일	정신대 문제	추후결정
6월17일	도자기 실습 (원주)	장송모 (인간문화재)

KEUMKANG CHEMICAL CO., LTD. KOREA CHEMICAL CO., LTD. KEUMKANG CONSTRUCTION CO., LTD.

경희대학교 개교 4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서서 달리는 사람
쉼없이 달리는 사람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시장에서의 내일은 끊임없는 인재양성과
앞선 기술개발이 좌우합니다.

더 좋은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 (주)금강
앞선 품질의 페인트, 수지, 실란트를 만드는 — 고려화학
뛰어난 설계와 철저한 시공 — 금강종합건설

바로 이들이 도전의 현장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앞서서 달리고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KCC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